

주한 문화주재관 워크숍 결과보고서

2009. 7. 15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주한 문화주재관 워크숍 결과보고서

2009. 7. 15



(재)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 결과보고

□ 사업목적

- BH 한류 대책보고 관련, 국가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국 주한 대사관 문화관계자 의견 수렴

□ 사업개요

1. 일시: 2009.7.10(금) 15시~22시
2.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제1세미나실
3. 주제: 세계문화공동체 형성 방안을 위한 의견수렴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
4. 참석자: 주한 해외문화원 관계자 18명 *, 문화부 관계자 10명, 유관기관 관계자 10명(총 40명 내외)

*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 몽골,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5. 워크숍 주요내용

- 가. 각국 간 쌍방향 문화교류와 문화산업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발표
(총 3명: 해외 2명, 국내 1명)
- 나. 종합토론
- 다. 칵테일파티
- 라.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관람(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및 뮤지컬 공연(번외 행사)

□ 워크숍 주요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00	등록	
15:00~15:10	인사말씀 1	유병한 실장(문화체육관광부)
15:10~15:15	인사말씀 2	김영훈 이사장(KOFICE)
15:15~15:20	축사	함영준 비서관(청와대)
15:20~15:40	주제발표 1(해외)	중국 문화원장
15:40~16:00	주제발표 2(해외)	멕시코 문화주재관
16:00~16:20	주제발표 3(국내)	고정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16:20~17:20	종합토론	
17:20~18:20	전시관람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18:20~19:40	만찬	한식뷔페 - 스탠딩(칵테일파티)
19:40~22:00	뮤지컬 공연 관람	클레오파트라

※ 사회자: 박정숙 교수(방송인,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교수)

※ 칵테일파티 진행 시 국악공연(30분)

□ 추진경과

1. 기본계획 확정 및 내부결재: 6.25
2. 초청장 제작 및 발송, 사회자 및 발표자 섭외: 6.25
3. 국악공연팀 섭외: 6.29
4. 해외 문화주재관 RSVP: 6.25~26(1차) / 6.29~6.30(2차)
5. 전시 및 공연 예매: 6.29
6. 칵테일파티 예약: 6.29
7. 현수막 및 x-배너 제작: 6.29~7.3
8. 발표원고 접수 및 회의자료 제작: 7.3~7.6
9. 워크숍 개최 최종 점검: 7.6

□ 소요예산: 총 11,732,440원(지출과목: 한류정책자문위원회)

1. 발표자 사례비: 300,000원 × 2명 = 600,000원
2. 사회자 사례비: 500,000원
3. 통역사 및 통역장비임대료: 2,744,500원
4. 간담회비(칵테일파티): 34,650원 × 50명 = 1,732,500원
5. 제작비(자료집, 현수막, x-배너 등): 1,017,500원
6. 공연관람료: 40,000원 × 46명 = 1,840,000원
7. 선물구입비: 20,000원 × 50개 = 1,000,000원
8. 국악공연: 1,100,000원
9. 기타 진행비(번역비, 물품구입, 우편통신비 등): 1,197,940원

- 불임 1: 발표자료 국/영문(해외 2명, 국내 1명)
- 불임 2: 종합토론 회의록
- 불임 3: 국내외 참가자 명단
- 불임 4: 전시관람 개요(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 불임 5: 뮤지컬 공연 개요(클레오파트라)
- 불임 6: 참석자 증정용 선물(부채)
- 불임 7: 국악공연팀 개요
- 불임 8: 행사사진
- 불임 9: 행사 언론보도 현황

<붙임 1-1> 발표자료 _ 중국: 처자오허(Che Zhaohe)

전 세계 국가 간 이해 및 우호의 가교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 28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제33차 회의에서 한국의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에 대해 한국 정부 및 문화관광부에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문화 사절단을 위해 이렇게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또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중 관계를 비롯해 전 세계 국가 간 문화 교류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에 처음 방문합니다. 첫 방문이라고 말한 이유는 엄밀히 말해 지난 5월 21일 처음으로 한국에 도착한 탓도 있지만 한국과 그 찬란한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간 한국 관련 사안에 직접 관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찬란한 문화유산과 뛰어난 현대 문화를 자랑하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하게 되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류의 본거지에서 일한다는 점 또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어를 못한다는 점 때문에 걱정됩니다. 여기 계신 외교 사절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외교관으로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사절로서 저의 임무를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깊은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애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은 최고의 스승'이란 중국 속담처럼 말입니다. 함께 일하는 뛰어난 동료들이 있기에 자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조예가 깊은 신세대들입니다. 한·중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중국 정부 및 주한 중국 대사관의 전폭적인 지지 또한 신임 문화 참사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체육 관광부의 지원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1992년 8월 24일, 중화 인민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17년이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외교는 빠르고 순조롭게 발전해왔습니다. 한중 무역이 대표적

인 예입니다. 1992년 50억 달러였던 무역량이 2008년 작년 한 해에만 37배 증가해 1,861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3번째로 큰 무역국이며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양국의 문화 교류 또한 매우 만족스럽고 고무적인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1994년 3월 28일, 한·중 정부는 문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일환으로 매 2, 3년에 걸쳐 양국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번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이고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기쁩니다. 한중 문화 교류 또한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작년 5월의 강릉 단오제 축제로서 중국 예술단과 민속 예술단이 축제에 참석했으며 며칠 전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린 2009 세계 합창 대회에도 중국 합창단 2팀 이상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에는 중국의 북경 오페라 단원이 경기도 양주에서 초청 공연을 벌일 예정입니다. 수년 전, 수많은 한국의 예술 단원들 또한 중국에서 공연한 바 있습니다.

국립 발레단과 서울 예술 공연단은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릴 제 11회 아시아 예술 축제에 초청 받기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양국 간 문화 교류 및 협력은 많은 결실을 맺은 분야라고 단연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더 나은 한중 외교의 미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의 주최국인 한국에 감히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국 고위 문화 사절단 간의 잦은 교류를 통한 관계 유지.

둘째, 양국 문화 지식인 및 예술가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셋째, 양국 간의 문화 산업 및 교류를 위한 건실한 협력 강화.

넷째, 양국의 지방 자치 단체 및 자매결연 도시 간의 문화 교류, 협력 증대 및 활성화. 이상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지인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는 지구촌화 된 첨단 정보 기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국가도 홀로 살아 갈 수 없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비로써 전진 할 수 있습니다. 분열과 고립을 자초하는 순간 실패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위시해 전 세계 모두를 잇는 이해와 우호의 가교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말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uilding a Bridge of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Around the World**

Che Zhaohe

Cultural Counsellor of the Embassy of China

Director of the China Cultural Center in Seoul

Good afternoon!

First of all, let me extend my congratulations to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designation of the Joseon Royal Tombs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at the 33rd Session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in Seville, Spain on June 28, 2009.

Second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the Cultural Ministry of ROK for holding such a nice workshop for foreign cultural attaches residing in Korea. It is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exchange views on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a particular n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among all nations for that matter.

I am a new comer here in Seoul. I am new, not only because I came to Korea just recently, on May 21 this year, to be exact, but also because I had not been directly involved in the Korean affairs for the past 20-odd years even though I have always kept a keen interest in Korea and her brilliant culture. This is my sixth mission abroad as a cultural diplomat. To be frank with you, my dear colleagues, this is the most exciting, enchanting as well as challenging job for me!

It is exciting because I am now working in a country with rich ancient cultural heritage and splendid modern culture. It is enchanting because I am now in the center of *Hanryu*, or "the Korean Wave". It is challenging, because I have no knowledge of *Hankuko*, or "the Korean language". You might agree with me, my dear colleagues from the diplomatic corps, that it is quite inconvenient for a diplomat who does not speak the local language. But I am confident that I can make it. By that I mean I can get my job well done. I can make it, not only because I have a deep love of, and devotion to, my job, but also because I love the Korean culture. A Chinese saying goes like this:

Love is the best teacher. I can make it because I have got a marvelous working team -- a group of young people who have a good command of the Korean language and know the Korean culture. I can make it because I have got the full support of our ambassador and our government to do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Korea. I am sure that I could also get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on August 24, 1992. The formal ties between P.R.C. and R.O.K is not long, 17 years only. However,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have been developing very fast and quite smoothly. Let's take bilateral trade for example. In 1992, the total bilateral trade volume between China and ROK was 5 billion US dollars. Last year, the year 2008, the total trade volume went up to 186.11 billion US dollars, a 37 times increase. China is now the largest trade partner of ROK while ROK is now China's third largest trade partner (as a single country).

It is pleasing and encouraging as well in the area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Korea.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the Cultural Agreement* on March 28, 1994. Once every two or three years, we sign an executive program for the agreement. We have signed 7 executive programs up to now. I am delighted to say that the programs have been carried out quite well and with much satisfaction. The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are quite active.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Two performing arts groups and a folklore group from China participated in the *Gangneung Dannoje Festival* last May, more than two Chorus Groups from China performed in *the 2009 World Chorus Competition* held in Changwon, GeongsamNamdo a few days ago and, a Peking Opera Troupe from China is invited to perform in Yangju, Geonggi-do this coming September. Quite a large number of Korean artists and arts troupes have presented their shows in China in the past few years. The Korean National Ballet Troupe and the Seoul Arts Troupe are invited to perform in *the 11th Asia Arts Festival* to be held in China in August this year. I am proud to say that, in the area of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OK, we have done a lot, but there are a lot yet to be done, which could be done and should be done. We should not be complacent about it. Therefore, may I put forward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our host country – the Republic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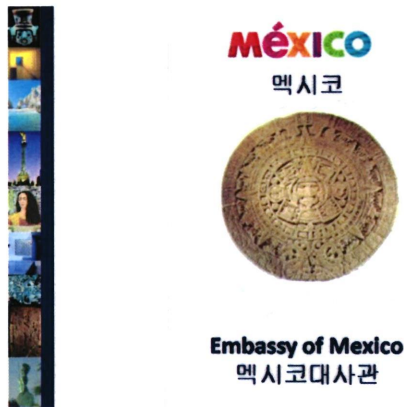
1. To keep the good momentum of frequent contacts between the top cultural leaders of our two countries.
2. To increase the interac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intelligentsia and the top artists of our two countries.
3. To enhance concrete cooperation on cultural (creative or content) industry and cultural trade between our two countries.
4. To strengthen and energize the cultu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s and sister cities of our two countries.

My dear colleagues, friends,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living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high-tech, which turn the globe into "a small village". No one, no country in the world, could be separated from the others. Joining hands together, we win; separation and isolation, we lose. Let's join hands together in building a bridge of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among us and among all nations around the world.

Thank you.

<붙임 1-2> 발표자료 _ 멕시코: Jorge Agraz





México 음식 축제



-멕시코 음식 메뉴
2009년 9월
밀레니엄 힐튼 호텔



THE SHILLA
BUILT 1988

-멕시코 소고기 수출협회
소고기 캠페인



-우정 박람회
하이 서울 페스티벌 (Hi Seoul Festival)의 멕시코 부스



México 영화제



-멕시코 영화감독
아카데미 시상 후보
44 수상
29 후보 지정

한국 프라다 트랜스폼머 개최, July 2009
큐레이터 - 육채, 마음, 영혼, 그리고 영화
전시 - 14 국제영화
주요 강자

TRANSFORMER
트랜스폼머
ART ARCHITECTURE FILM FASHION



México 영화제

라틴 아메리카 영화제
7월 - 8월



-판의 미로 (멕시코, 스페인, 미국)
워너 브라더스와 공동 제작 후 아카데미 상 3번 수상

-부작용 (멕시코)
워너 브라더스와 공동 제작



México 영화제

X 멕시코 영화제
8월 - 10월

5대 도시 극장 상영: 서울, 광주, 전주, 부산, 전주
5개 상영작: 영웅의 법칙, 상처 등



KOFIC
남양주종합촬영소



México 공연단

-콜라미 민속춤 (2007)
하이 서울 페스티벌 (Hi Seoul Festival)
3개 도시에서의 공연: 서울 대구, 부산

-마리아치 그룹 (2007-2009)
하이 서울 페스티벌 (Hi Seoul Festival)
2009년 한국 전체의 축제



México 문학



세르지오 피톨
-페르반테스 수상
-자신의 소설 "사랑의 행진"을 한글로 번역
(PYI Publishing House 번역)
-서울대, 한국 외대 강연
-대구 스페인어 센터 (페르반테스 연구소
관련)





México

미술 전시회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거장들 (2008)

- 멕시코, NMCA
- 총 17개국
- 멕시코, 35개 작품으로 참가
- 18개 작품 국보로 인식
- 프리카다 카로, 디에고 리베라, 호세 클레멘테 오로코, 씨퀘로스
- 클레멘테 오로코 발라다르레
- 강연
- 【호세 클레멘테 오로코의 아들】





México

한국내의 멕시코 건축





겨울의 집-제주도의 호텔

건축가 리카도 레고레타

-2010년 완공

주요강연

건축가 리카도 레고레타

홍익대학교 2009





México

건축





건축가 루이스 바라칸 (2009)

- 건축 전시회
- 공평 예술 센터
- 2009년 11월





México

오케스트라 공연





포항 팔하모니 오케스트라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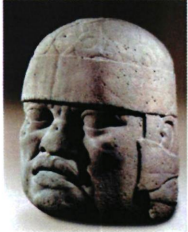
-아르투로 마키에즈가 작곡한 음악을 포함한 멕시코 음악 연주



México

2010, 200주년 기념





올멕(Olmecs)

라틴아메리카 이전 멕시코의 기원

80-90여 작품 전시

거대 석두 동상 포함 (4미터 높이)

2010년 3월 - 2011년 5월

멕시코 국립악: 200주년 기념

멕시코 혁명: 100주년 기념



감사합니다

México







멕시코



Embassy of Mexico
멕시코대사관







멕시코

Mexico and Korea
Strengthening the cultural ties



Embassy of Mexico
멕시코대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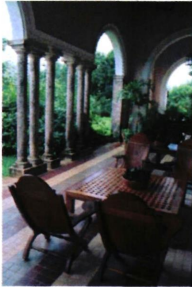






Agreements





- Cultural, Scientific & Education Agreement, April 29, 1966.
- IV Meeting of the Joint Commission on Educational and Cultural Cooperation
- Program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Cooperation for the years of 2006-2009.





Agreements





- MOU in cultural heritage CHA - National Council of Culture and Arts
- Agreement of Cooperation of Youth between the Mexican Institute for Youth and the MCST.





Agreements






- 48 Initiatives & Programs
- Education,
- Culture,
- Art,
- Sports,
- Youth,
- Plastic Arts,
- International Festivals
- Film,
- Music,





Spanish Exam & Courses






- EPLE, Spanish Language Proficiency Online Exam, May 30, 2009
- Intensive Spanish courses, Summer & Winter session
- 5 Full paid scholarships (including airfare) MA and PhD candidates
- Public & Some Private Schools in Mexico



México
Culinary Festivals



-Mexican cuisine menu
September 2009
Millenium Hilton



-Mexican Beef Exporters Association
Beef Campaign



-Friendship Fair
Mexican booth at HI Seoul Festival




México
Film Festivals



-Mexican Film Director
Academy Award Nominee
44 Awards
29 Nominations

Korea Prada Transformer, July 2009
Curator - Flesh, Mind, and Spirit, Film
Screening - 14 International films
Master Lecture





México
Film Festivals

Latin American Film Festival
July-August



-Pan's Labyrinth (Mexico, Spain, USA)
3 Academy Awards Co-production with Warner Bros.

-Side Effects (Mexico)
Co-production with Warner Bros.






México
Film Festivals

X Mexican Film Festival
August - October

In movie theatres in 5 cities: Seoul, Gwangju, Gyeongju, Pusan, Jeonju
5 films including: Herod's law, Scars,







México
Performance Groups

-Folkloric Ballet of Colima (2007)
HI Seoul Festival
Presentations in 3 cities: Seoul, Daegu, Busan

-Mariachi Group (2007-2009)
HI Seoul Festival
Festivals throughout Korea 2009




México
Literature



Mr. Sergio Pitlor
-Cervantes Prize Laureate
-Translation of his novel "The Parade of Love"
into Korean by PIY Publishing House
-Master lectur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panish Center at Daegu (Cervantes Institute
affiliated)





MÉXICO

Art Exhibitions

20th Century Masters of Latin America (2008)

- Duksung Palace, NMCA
- 17 countries
- Mexico participated with 35 paintings
- 18 regarded as national treasures
- Frida Kahlo, Diego Rivera, José Clemente Orozco, Siqueiros
- Master Lecture by Clemente Orozco Valladares (Son of José C. Orozco)



MÉXICO

Mexican Architecture in Korea



- House in the Water - Hotel in Jeju
- Architect Ricardo Legorreta
- Construction finishes in 2010

Master Lecture
Architect Ricardo Legorreta
-Hongik University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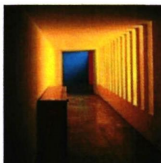


MÉXICO

Architecture

Architect Luis Barragan (2009)

- Architecture exhibition
- Gongpyeong Art Center
- November 2009



MÉXICO

Orchestra Performance



Pohang Philharmonic Orchestra 2008

- Performed Mexican Music program, including music composed by Arturo Márqu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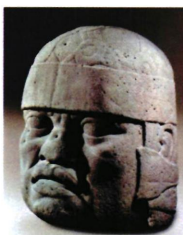
MÉXICO

2010 Bicentennial

The Olmecs

The Origins of
Prehispanic Mexico

- 80-90 pieces exhibition
- Including 1 Colossal Head (4meters height)
- March 2010 - May 2011



4 meters

Mexico's National Day: 200th Anniversary
Mexican Revolution: 100th Anniversary



Thank you

MÉXICO



<붙임 1-3> 발표자료 _ 한국: 고정민

쌍방향 문화교류 현황과 향후 방향

국가간의 교류에는 문화, 예술, 인력 등의 문화교류와 방문, 연주, 상영, 방송, 접촉, 교환, 무역 등의 일반교류가 있다. 이중 문화교류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교류활동을 하는 직접형 교류가 있으며, 제3국 혹은 국제기관을 통한 간접형 교류방법이 있다. 또한 교류주체에 따라 민간문화교류와 정부문화교류로 분리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간 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유로는 첫째, 국제문화교류는 국가를 홍보하고 자국문화를 이해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며, 둘째 문화교류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가져오고, 문화정체성을 발견하거나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은 우리문화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국제문화교류를 시작했으며,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국제문화교류의 방향이 전환되었다.

한국의 국제 문화교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9개국 12개의 한국문화원을 운영을 운영하고 있으며, 22개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문화홍보관이 파견되어 있고, 산하기관인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지사를 통해 폭 넓은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활동을 찾아 볼 수 있다. 다양한 국제교류활동을 통해 한국, 한국인, 한국문화를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문화외교협력, 우수문화예술해외소개, 해외박물관 지원, 다문화예술, 다문화 이해강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더불어 문화에만 한정하지 않고 인력교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교육교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지자체에서도 최근 국제문화교류에 관심이 고조되어 해외 각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문화교류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간차원에서의 국제 문화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다. 정부의 자금지원에 따른 미간의 문화예술교류가 대표적이며, 한국기업이 문화메세나 차원에서 현지 문화의 지속, 발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러시아의 볼쇼이발레단을 지원하고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 및 지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산업에 초점을 맞춘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있으며, 부산국제

영화제와 같이 축제와 이벤트 등을 통한 문화교류가 추진되고 있다.

교류라는 것은 일방향일 수 없기 때문에 쌍방향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시대의 도래, 한국의 위상 제고, 다문화사회의 확대 등으로 쌍방향 문화교류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교류에 의한 상호이해를 중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에 자국 및 해외 국가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게 되었다. 쌍방향 문화교류의 형태 중 인적교류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데, 특히 유학생들의 유출입 현황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해 창조적인 발전, 즉 문화의 교류를 통해 과학의 발전과 전파, 사상 및 철학 등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개방과 상대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이해와 협력강화 등의 효과를 통해 공통의 지식, 기술, 가치관 등을 개발해 제3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쌍방향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국제문화교류 사업인 '문화동반자사업(CPI :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은 문화, 예술, 산업, 관광, 체육 등 세계 각국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관련 분야의 교류와 지식을 넓히는 문화 레지던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가간 문화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민과 주한외국인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가 있으며, 음악산업의 쌍방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아시아송페스티벌, 해외 오피니언 리더 초청,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해외 지역과의 문화교류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의 활동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쌍방향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해외 사례로는 영국의 'Visiting Arts'를 꼽을 수 있는데, 영국에서 공연하려는 해외단체들에 대해 지원해 주고 있다. Visiting Arts는 수준 높은 해외 현대예술동향을 영국에 소개하는 영국 내의 예술후원 단체들을 지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 진출 관련 다양한 지원·정보(재정, 법률, 행정 등)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제문화교류의 과제를 몇 가지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정책이 요구된다. '한국이해'가 아닌 '세계이해'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또한 정부중심의 문화외

교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체가 되는 민간문화외교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교류도 강화도 강화되어야 한다.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Interactive Cultural Interchange

There are two kinds of interchange between countries. One is cultural interchange which includes culture, arts, and human resources, and the other one is general interchange which includes visits, performances, screenings, broadcasts, contacts, exchanges, trade, etc. There are two kinds of process of Cultural Interchange. First one is direct interchange. Direct Interchange is to be executed directly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The next one is indirect interchange. Indirect Interchange is to be executed through a third country or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t can be divided into Civilian Cultural Interchange and Governmental Cultural Interchange according to the subject of interchange.

There are at least two reasons why international culture interchange is actively taking place between countries. First, International Cultural Interchange comes from efforts to promote a nation and make others familiar with its culture. Second, Cultural interchange promotes the development of arts and culture, and provides opportunities to discover or confirm cultural identities. Korea started to take a part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s to broadcast the existence of Korean Culture, and since then the policy of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s was changed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nvironment.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examine the status of Korea's International Cultural Interchanges. The Ministry is operating 12 Korean Cultural Centers in nine countries and dispatching Cultural Promotion Officers to 22 Korean embassies or consulates abroad. Also, it is promoting widespread culture exchange through overseas branche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such as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We will take a look at the activities of KOREA FOUNDATION and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which are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Korea Foundation is diversifying exchange activities to let the world know about Korea and Korean Culture. Meantime, the foundation is also holding Cultural Diplomatic

Collaboration, Overseas Presentation of Higher Cultural Arts, supporting overseas museums, multicultural arts, and lectures and seminars. Its activities are not limited only to culture, but also in the area of exchanging human resources. Let us look at the activities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is participating cultural exchange through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and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Recently, some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also taking actions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by establishing sisterhood relationships and holding cultural events with other countries.

Next, we are going to examine the status of Civilian Cultural Exchange in Korea. The typical type of civilian cultural exchange is Cultural Arts Exchange through government financial aid. And some Korean enterprises are supporting local cultures as cultural Mecenats. For example, Samsung Electronics is supporting the Bolshoi Ballet in Russia and also establishing and supporting the Tolstoy Literary Award. To add to this, other cultural interchanges such as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which executes Interactive cultural exchange projects focused on industries, and Film Festivals and Events like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IFF) are actively taking place.

The exchange can not be one-way, so no one will object to the need of culture exchange. The arrival of the global age, Korea's rising status, and the expansion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is increasingly demanding two-way cultural exchanges. The global age is to recognize cultural diversity and value the mutual understanding that comes from cultural exchange. Therefore, education system in understanding culture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became important. We need to examine closely on the personal exchange among interactive culture exchange. Especially, the adverse balance of the flow of Korean students means a lot.

Through interactive culture exchange, we can accomplish scientific development and circulation, and improve ideology and philosophy. Prior conditions for all I mentioned are Opening, Mutual Understanding and Interest. The effects of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can make common knowledge, technology, and sense of values. As a

result, a third value can be created through mutual appreciation and cooperation.

These are examples of interactive cultural interchange. **First**,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 is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Initiative promo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ince 2005. Also, CPI is a cultural residency initiative expanding exchange and knowledge in the related field by inviting and accommodating international experts in the culture, arts, industry, tourism and sports sectors. CPI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bridge to build a network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and improve policy exchange. **Second**, Korea Foundation Cultural Center has been positioned as an open venue for Koreans and foreign residents of Korea to experience and appreciate a variety of global cultures. **Third**,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KOFICE) is executing various cultural exchange programs such as Asia Song Festival providing opportunities to exchange music industry between countries, Asian Picture Products Exchange, Korean regional cultural activities, and Inviting Opinion Leaders from the Press and Cultural Circles.

Overseas example of interactive cultural interchange is Visiting Arts of England supporting for overseas troupes to perform in England. Visiting Arts is supporting and advising British Arts Supporting Organizations to introduce higher-level overseas contemporary arts trends, and also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such as financial, legal, administrative aids regarding to advancing into England.

Let me add a few words in conclusion, solutions to Korea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e have focused on promoting Korea and Korean culture so far, but a policy supporting interactive cultural exchange is required from now on. It is time to change the idea from 'Understanding Korea' into 'Appreciating the World'. Also, it is essential to activate civilian cultural diplomatic relations rather than government-centered cultural diplomacy, and to strengthen the exchange of popular culture as well as traditional culture.

<붙임 2> 종합토론 회의록

• 최병구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임.
- 문화는 창조 경제의 틀이며, 큰 부가가치를 생산함.
-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고 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문화임.
- 문화는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서로에게 소통이 될 때 의미가 있음.
- 문화교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워크숍이 처음이라 아쉬움.
- 앞으로는 이런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문화 관련 혹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 관련 한국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 Bruna Gagliardi (브라질)

- 이렇게 좋은 모임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고마움.
- 올해 브라질과 한국은 수교 50주년 기념행사를 열 계획임.
- 축제 분위기에서 브라질의 전통 음악 콘서트, 샴바 스쿨 콘서트, 미술, 음식, 국제 영화제, 학술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브라질 무술단이 참가해서 한국 태권도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임.
- 문화 교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어 제안 드림.
- 먼저 이런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싶어도 장소 섭외가 어려움.
- 한국에는 상당히 좋고 많은 공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막상 실무진에서 문화교류 행사를 열 수 있는 장소를 구하기가 마땅치 않음.
- 한국 정부가 장소 섭외를 도와주었으면 함. 동시에 장소뿐만 아니라 진행시 필요한 장비 지원도 건의 드림.
- 문화 행사를 사실 민간인과 같이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프로듀서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느낌.
- 자금지원과 더불어 민간 측에서도 문화교류 행사를 지원해 주었으면 함.
- 각국 대사관은 문화관련 행사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브라질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류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동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했으면 함.
- 이 경우, 같은 돈으로 분명 2배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임.
- 미자막으로 중장기적인 교류프로그램을 활성화 했으면 함.
- 예를 들자면 브라질은 이미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학생 교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이런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분명 문화교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 Jorge Agraz (멕시코)

- 브라질 Bruna Gagliardi 의견에 부분 답변 드림.
- 현재 서울시에서는 각국 공관에 일정 부분 문화 관련행사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음. 서울시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절차를 알아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멕시코의 경우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교통, 보험 등의 실무 진행시 서울시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행사를 마친 경험이 있음.

• 강병구

- 브라질 대사관에 문화담당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음.
- 올해가 브라질과 한국이 수교 50주년이라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임.
- 브라질 현지와 지속적 연락을 통해 문화교류행사를 준비 중에 있음.
- 문화교류는 일방적이기 보다는 쌍방향이어야 함.
-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림.
- 하지만 본인도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문화교류 행사 진행시 한국에서 진행하는 행사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하고, 브라질 현지에서 진행되는 행사의 비용은 브라질 정부가 부담했으면 함.
- 이런 방식의 상호 교류가 훨씬 더 알찬 행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함.

• 유병한

- 한국이 브라질에서 문화교류 행사나 이벤트를 추진할 때 현지 한국 대사관이나 문화원에 사전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음.
- 이에 향후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때 '정보교류'도 병행되어야 함.
- 사실 한국도 행사를 진행하기위해 사전에 기획할 때 장소 섭외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 보통 장소, 예산, 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함.
- 장소 섭외 문제와 관련해서 브라질 정부도 한국 문화교류 행사 준비 측에 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 Narat Vidyananda

- 이런 유익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한국에 온지 3주 밖에 되지 않았음. 그런 점에서 행운이라고 생각함.
- 이런 워크숍은 양국 간 문화협력에 필수 절차라고 생각하며, 워크숍이 일 년에 두 번 정도 정례화 되었으면 함.
- 한국 정부는 문화행사를 조직하는데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 행사를 조직, 운영하는 노하우를 매뉴얼 형태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유병한

- 앞으로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워크숍이든 간담회 혹은 오리엔테이션이든 정례화 하도록 하겠음.

• 이찬범

- 태국 측의 제안에 대해 고맙게 생각함.
-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드는데 아주 좋은 제안인 듯함.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방향 문화교류는 더 이상 불가능함.
- 쌍방향 문화교류만이 문화산업의 살 길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의 교류가 많이 늘어나야 할 것임.
- 내년에는 단기적으로 교류행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한국의 학생이나 외국의 학생들에게 단기 연수 지원을 할 계획임.
- 장기적으로는 이런 지원 계획을 3-4년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임.
- 이런 한국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상대측 정부도 많은 학생을 한국으로 보내서 쌍방향 문화 교류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힘 써 주시기 바람.

• Mylo Fausto (필리핀)

- 먼저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함.
- 올해는 필리핀과 한국의 수교 60주년 기념의 해임.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등에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함.
- 브라질 측에서 제기한 문화 행사 진행시 장소 섭외 지원 문제에 공감함.
-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기술이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임.
- 이런 인프라를 이용해 공동 프로젝트를 구상, 운영했으면 함.
- 일례로 필리핀과 한국의 전통 문화를 온라인을 통해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함. 양국 전통 문화 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바로 번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기대함.

• 김승수

- 요즘 한국드라마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음.
- 그런데 개인적으로 놀란 것은 남미의 텔레노벨라(드라마 장르)가 한국의 드라마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임.
- 한국과 남미는 지구의 정 반대에 존재하는 국가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유사성을 보일 수 있는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양국의 히트 드라마(그 해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를 서로 교환했으면 함.
- 종합 편성 채널을 2개 정도 구성하면 아주 저렴하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임.

• Bruna Gagliardi (브라질)

- 남미와 한국의 드라마에 유사점이 많다는 말은 맞음.
- 남미의 드라마는 지난 5년간 60개국에 수출이 됐음.
- 꽤 유명하며, 드라마의 질도 뛰어남.
- 모로코의 경우 전체 세대의 98%가 TV를 보유하고 있는데, 드라마를 방영하면 TV 보유 세대는 다 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임.
- 브라질의 상파울로에는 약 60,000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음.
- 특히 한국영화 'Old boy'(최민식 주연)가 일부에서는 무섭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브라질에서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런 것이 바로 문화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봄.

• Jorge Agraz (멕시코)

- 본인은 한국에서 근무한지 3년 되었으며, 그간 나름 노력도 많이 했음.

- 한국 정부와 TV방송국들은 꽤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처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겨울 연가'가 대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보이지 않는 끈임 없는 노력 덕택이 아닌가 생각함.
 - 하지만 한국인들은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너무 모름.
 - 또한 멕시코의 문화 인사나 유명배우 10명 정도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유명 배우, 감독 등과 만나게 했으면 좋겠음.
 - 이런 과정에서 문화 교류 관련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겨난다고 봄.
 - 물론 문화 행사 관련해서 민간인의 노력도 필요함.
- 유병한:
 - 한국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음.
 - 또한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음.
 - 언어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음.
- 김승수
 - 텔레노벨라와 한국드라마를 한자리에 모아 보는 것을 제안함.
 - 서울 아니면 남미에서 드라마 관련 공개토론회를 제안함.
 - 드라마 각색, 제작도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한국 드라마를 브라질 특색에 맞게 각색해서 미국시장에 함께 진출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차원의 문화교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 Andrii Berezenskyi (우크라이나)
 -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문화교류 가능성을 보았음.
 - 국제협력단이나 국제교류재단의 도움을 받아 댄싱 축제나 영화제를 진행했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 3-4개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도 한국과 많은 문화교류가 있었으면 함.
 - 한국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단기 언어 연수도 가능할뿐더러 장기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봄.
 - 오늘 같은 워크숍이 고마울 뿐이며 감사함.
- Thong Nguyen (베트남)
 - 베트남에서 한류의 흐름은 아주 강함.
 - 한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널리 퍼져 있음.
 -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연예인들이 인기가 아주 높음.
- 유병한
 - 쌍방향 문화교류가 진정한 교류임.
 - 따라서 한류란 말을 앞으로는 쓰지 않을 것임.
 - 한국 정부도 민간과 함께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임.

- 이승철

- 게임산업협회는 80여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음.
-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현재 전 세계 인구 60억 중 약 10억 명이 한국의 온라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 10년 전과 비교하여 비약적 성장인 것임.
- 게임은 기술, 스토리, 미술, 음악 등 여러 가지가 결합하여 나온 완성품임.
- 또한 서양의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이 인기가 높음.
- 한국의 게임 파트너가 되고 싶은 단체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경제적 효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만들어 보고 싶음.

- 심혜련

- 본인은 한국의 문화와 관광을 홍보하고 있음.
- 문화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홍보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 장소섭외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광공사 빌딩내의 세미나실 이용도 가능함.
- 또한 공사 500m 근방에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연장도 있음.
-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길 바람.

- 권 윤

- 쌍방향 문화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인정함.
- 여기에는 지원도 필요함.
- 2개월 전 해외의 국영 방송과 몇몇 단체와 다큐, 교양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했음.
- 방송, 영상으로 제작해서 현지 방영을 했음.
- 우즈베키스탄 국영 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 SBS와 협력하여 4부작으로 제작했는데, 1-3 편은 우즈베키스탄 관련 내용이며, 이미 SBS를 통해 방영 되었음.
- 4편은 한국 관련 내용으로 현재 14개 국가와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제작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20-30개 국가로 확대되길 기대해 봄.

- 황준석

- 과거에는 한국문화를 생각할 때,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아주 강했음.
-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마인드로는 문화교류를 진행할 수 없음.
-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으며, 현재는 다양성 확보가 훨씬 중요함.
- 한국은 외국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서로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할 때 청소년, 학생 등을 교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 시키면 시킬수록 장기적으로 인력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함.

- 유병한

-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 만들도록 하겠음.
- 다음에는 영화나 음악도 함께 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음.
-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붙임 3> 국내외 참가자 명단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명단>

No	공관명	성명	직책
1	China	Zhao He, Che(Mr)	Cultural Counsellor Director of the China Cultural Center
		Min, Woo(Ms)	Cultural Attache
2	Mexico	Jorge A. Agraz(Mr)	Cultural, Education, and Tourism Affairs/ Third Secretary
3	Vietnam	Thong Mguyen(Ms)	First Secretary
4	Uzbekistan	U. Kurbanov(Mr)	Cultural Attache/ Third Secretary
		Lyuba Kim(Ms)	Translator
5	Japan	Taeko Takahashi(Ms)	Minister for Public Information & Cultural Affairs
6	Thailand	Narat Vidyananda(Mr)	First Secretary
7	Brazil	Bruna Gagliardi(Ms)	Cultural Attache
8	Philippines	Mylo Fausto(Mr)	Cultural Officer and Attache
9	Cambodia	Nguon Socheath(Mr)	Counsellor
10	Mongolia	Tenuun Bold(Mr)	Third Secretary
11	Singapore	Thai-Keong Chua	Ambassador
12	Indonesia	Ahmad Mulia Karnida(Mr)	Counsellor
13	Malaysia	Said Zulkifli(Mr)	Deputy Director, Malaysia Tourism Promotion Board
14	Ukraine	Victoria Berezenska(Ms)	Cultural Attache
		Andrii Berezenskyi(Mr)	Diplomat(Husband)
15	India	Satish Sharma(Mr)	Second Secretary

<국내 관련기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명단>

No	성명	기관	비고
1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2	김덕중	청와대 행정관	
3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4	이은철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장	
5	조민정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	
6	심혜련	한국관광공사 관광상품팀 차장	
7	권윤	한국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본부장	
8	서태건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본부장	
9	김영덕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실 연구위원	
10	황준석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시민국장	
11	이찬범	국가브랜드위원회 대외협력국장	
12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3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14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15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16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홍보사업과장	
17	강병구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장	
18	김승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19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20	최평호	싸이더스 FNH 대표이사	
21	이승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	
22	박정숙	경희대학교 교수	

<붙임 4> 전시관람 개요(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 기간: 6.16(화) ~ 8.16(일)
- 장소: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 관람료: 무료

<전시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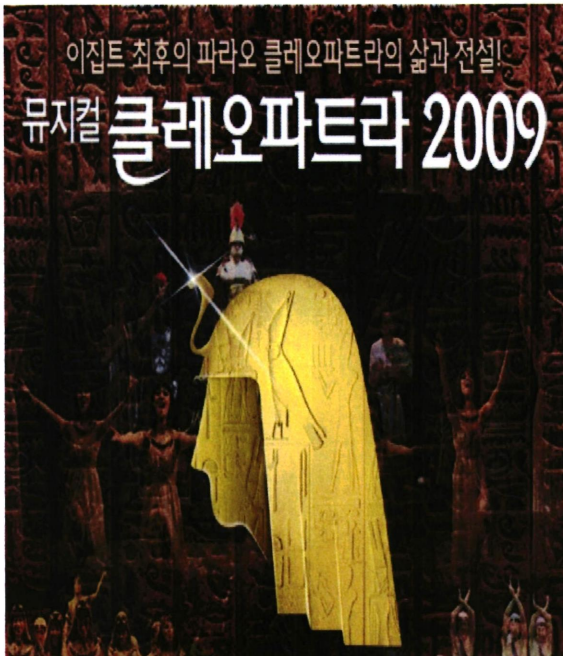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2009년 6월 16일부터 8월 16일까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차마고도의 삶과 예술' 전시를 개최한다.

'차마고도'란 서남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서 고래로 티베트의 고원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된 유목문화권과 중국 남부의 윈난(雲南)성과 쓰촨(四川)성을 중심으로 한 조엽수림지대(照葉樹林地帶)를 잇는 교역 네트워크를 말한다. 우리는 양 지역의 대표적인 교역품의 명칭을 빌려 이를 「차마고도의茶馬古道」라 부르고 있다.

기존의 티베트 관련 전시가 밀교예술에 주안점이 두어진 것이라면, 이번 전시에는 종교예술 이외에도 차마고도 상의 다양한 민족이 사용하였던 생활용구 등을 체계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그들의 삶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다. 차마고도 주민의 삶을 대표하는 생활유물에는 복식과 직물자료, 차에 관련된 도구 등이 전시되고, 티베트의 독특한 불교예술의 이해를 위해 탕카와 불교조각, 불교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차마고도인의 삶을 생생하게 느끼고 차마고도상의 다양한 민족에 의해 영위되었던 예술세계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전시는 차마교역의 카라반을 이끄는 마방馬幫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의 인생 여정에 맞춰 6개의 주제로 구성하였다. 특히 관람객 중심의 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식 전시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붙임 5> 뮤지컬 공연 개요(클레오파트라)



- 기간: 5.26(화)~7.12(일)
- 시간: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7시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6시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 출연: 공형진, 정찬우, 전수미, 박란
최성원, 조휘, 정현철, 여운,
김승희 외 40여명
- 주최: (재)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 주관: (주)사춘기

<공연내용>

유럽 인기 뮤지컬 “클레오파트라”를 2009년 다시 만난다. 2002년 체코, 프라하 Davidlo Broadway 극장에서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유럽 인기 뮤지컬로 2008년 한국에서 초연되어 김선경, 박지윤, 김법래, 민영기, 최성원 등 실력파 배우들의 열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클레오파트라, 희대의 요부이자 뛰어난 외교 전략가로 술한 수수께끼를 남기며 현세에까지 사랑과 미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음악으로 구성하여 화려한 뮤지컬로 만들어 냈다.

이집트, 로마 시대의 분위기를 재현한 화려하고 규모 있는 무대, 역사적 고증을 통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클레오파트라의 매력을 화려하고 우아한 의상으로 더욱 돋보이게 했다. 뮤지컬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로마와 이집트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낸 무대와 의상과 함께 우아하고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붙임 6> 참석자 증정용 선물(부채)



<부채 종류: 다양한 종류의 동양화>



<선물 포장: 한국 전통 한지와 지끈 이용>

<붙임 7> 국악공연팀 개요

◆가야금 앙상블 '아라'◆



가야금 앙상블 아라는 2007년 1월 창단된 팀으로 모두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동문으로 이지연, 이현희, 정은영이 그 멤버이다. 팀의 3명 모두 2007년 팀의 결성 시기 이전 학부시절부터 함께 음악적 만남을 갖으며 교감을 나누어왔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보여주는 호흡과 앙상블은 매우 훌륭하다.

'아라'는 가야금이라는 악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옛 가야의 6개 나라중 '아라가야'라는 나라이름에서 가져왔다.

'아라'는 가야금이라는 한국의 전통적 악기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슬픔, 기쁨등 보편적인 감성을 전통과 현대적 감각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지연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졸업
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입상
KBS관현악단 협연
제1회 이지연 가야금 독주회
현, 성남시립 국악단 상임단원



이현희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가야금 삼중주 '가야미' 역임
경기도 국악단 정기연주회 협연
중앙국악관현악단 단원 역임
현, 국악앙상블 '노리' 단원



정은영

중앙대학교 한국음악과 졸업
중앙대학교 동 대학원 수료
가야금 삼중주 '가야미' 역임
중앙관현악단 단원 역임
현, 국립전통예술학교 강사



<붙임 8> 행사사진



워크숍 행사장 내부모습



국내 V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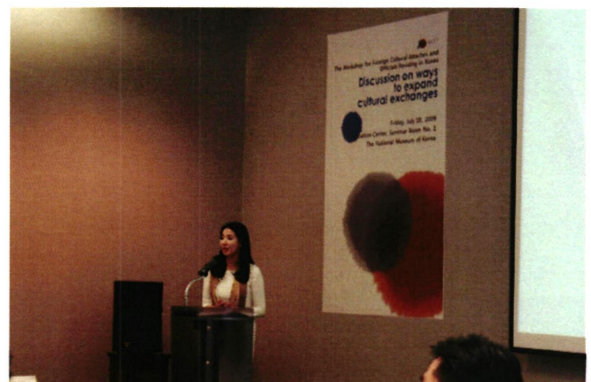
국내 VIP 인터뷰(유병한 실장)



국내 VIP 인터뷰(유병한 실장)



행사장 전경



사회자 _ 박정숙



환영사 _ 유병한 실장(MCST)



축사 _ 함영준 비서관(청와대)



인사말씀 _ 김영훈 이사장(KOFICE)



발표 1. 중국 _ Che Zhaohe



발표 2. 멕시코 _ Jorge Agraz



발표 3. 한국 _ 고정민



국내 VIP



Coffee Break



종합토론 _ 문화부 관계자



종합토론 _ 해외 문화주재관



종합토론 _ 유병한 실장



종합토론 _ 해외 문화주재관



종합토론 _ 국내 문화산업계 관계자



종합토론 _ 해외 문화주재관



종합토론 _ 해외 문화주재관



환영만찬



환영만찬 _ 건배제의



환영만찬 _ 축하공연(아라)

<붙임 9> 행사 언론보도 현황**[방송]****세계화 시대, 쌍방향 문화교류 필요**

- KTV [정보와이드 6] 2009.07.10 18:00

- URL: www.ktv.go.kr/program_home.do?method=detail&cid=307438&pcode=100879

한류가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다른 나라의 문화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세계화 시대에 쌍방향 문화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장금의 한식, 겨울연가의 배용준, 최지우 등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에게 낯선 나라의 문화가 아닙니다.

드라마와 게임, 영화, 음악 등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상호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개 나라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들을 초청해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멕시코와 브리질의 문화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과 중국, 한국과 멕시코의 문화교류 사례가 발표됐으며 나라간의 문화 예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술과, 기술, 인력 등의 교류를 통해 나라간의 이해를 넓혀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우리 문화 수요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신문]

문화교류 활성화, 우리들이 이끈다

주한 대사관 문화관련 담당자, 전문가, 관련 업계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서울문화투데이: 2009년 07월 10일 (금) 10:47:32 편보경 기자 ✉ jasper@sctoday.co.kr
- URL: www.s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



▲ 차마고도의 삶 이미지

세계 각 국의 문화 담당자들과 우리나라의 문화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주한 외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들을 초청,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10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부와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 문화공동체 형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워크숍에는 총15개국(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주한 외국 문화 주재관이 참석하게 된다. 우리측에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비롯, 문화산업 관련 업계, 문화교류 관련 전문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총 40여명이 참석해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각 국 문화주재관에 대해 한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부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별로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의 상호 교류 촉진 및 방송공동제작 활성화,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적 재산의 보호를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하게 된다.

이번 워크숍에서 중국문화원장(Zhao He, Che)과 멕시코 문화담당관(Jorge A. Agraz)이 각각 '세계 모든 국가간 이해와 우정을 통한 가교 구축하기'와 '한-멕시코 문화교류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쌍방향 문화교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또 과거 서남 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서 중국, 티벳, 네팔 등지에서의 문명간 교류역할을 한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삶과 관련된 전시물 관람과 뮤지컬 관람 등이 부대행사로 실시된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문화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우리문화가 세계 각 국에 친근하게 다가 갈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세계 각 국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들 국가와 문화, 학술, 기술, 인력,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숍에 참석한 국가들 대부분이 최근 한국 드라마, 음악 등의 대중문화가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다.

서울문화투데이 편보경 기자 jasper@sctoday.co.kr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교류 활성화 워크숍

유인촌 장관, 세계 문화공동체 형성 모색

강수현 기자

- URL: www.newsculture.tv/sub_read.html?uid=12082§ion=sc1§ion2=일반문화



▲ 유인촌 장관은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오는 7월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주한 외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각국의 문화 담당자들과 우리나라의 문화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 문화공동체 형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주한 외국 문화 주재관은 총 15개국(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이 참석하며, 우리측에서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해 문화산업 관련 업계, 문화교류관련 전문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서 총 4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 중국문화원장(Zhao He, Che)과 멕시코 문화담당관(Jorge A. Agraz)이 각각 '세계 모든 국가간 이해와 우정을 통한 가교 구축하기'와 '한-멕시코 문화교류 강화'라는 주

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쌍방향 문화교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워크숍의 부대행사로 과거 서남 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서 중국, 티벳, 네팔 등지에서의 문명 간 교류역할을 한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삶과 관련된 전시물 관람과 뮤지컬 관람 등이 함께 이루어진다.

워크숍에 참석한 국가들 대부분이 최근 한국 드라마, 음악 등의 대중문화가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이다. 향후 이들 국가와 문화, 학술, 기술, 인력,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각 지역별로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의 상호 교류 촉진 및 방송공동제작 활성화,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적 재산의 보호를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화전문 신문방송 뉴스컬처)

문화체육관광부,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만남의 장 마련

2009년 07월 09일 13:57

- 뉴스와이어
- URL: www.newswire.co.kr/?job=news&no=416247

2009년 07월 09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주한 외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국립중앙박물관(7.10, 금)에서 개최한다. 각 국의 문화 담당자들과 우리나라의 문화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이를 통해 앞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부와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이 함께 개최 하며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세계 문화공동체 형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총 15개국(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 주한 외국 문화 주재관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비롯하여 문화산업 관련 업계, 문화교류관련 전문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총 4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한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각 국 문화주재관에 대해 한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부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역별로 대중문화와 문화예술의 상호 교류 촉진 및 방송공동제작 활성화, 그리고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국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지적 재산의 보호를 다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중국문화원장(Zhao He, Che)과 멕시코 문화담당관(Jorge A. Agraz)이 각각 '세계 모든 국가간 이해와 우정을 통한 가교 구축하기'와 '한-멕시코 문화교류 강화'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정민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쌍방향 문화교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문화원장은 1992년 외교관계 수립후 그간의 양국간 문화교류 상황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고위 문화사절단, 예술가간의 빈번한 교류와 문화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멕시코 문화담당관은 한국과의 오랜 문화교류 현황과 앞으로 진행될 문화교류프로그램의 소개, 향후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고정민 연구원은 순수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분야에서의 국제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과제로 쌍방향적인 문화교류와 민간문화외교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워크숍의 부대행사로 과거 서남 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서 중국, 티벳, 네팔 등지에서
의 문명간 교류역할을 한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삶과 관련된 전시물 관람과 뮤지컬 관람 등
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문화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
질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우리문화가 세계 각 국에 친근하게 다가 갈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
고 세계 각 국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모
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워크숍에 참석한 국가들 대부분이 최근 한국 드라마, 음악 등의 대중문화가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가이다. 향후 이들 국가와 문화, 학술, 기술, 인력, 문화산업 부분에
대한 교류협력 강화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문화콘텐츠의 글로벌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 발전과 문화관
광산업의 육성, 관광 및 체육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21세기에 대비한 국
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정책과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일을 한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http://www.mct.go.kr>

문화부,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위한 만남의 장 마련

[유니온프레스=윤성혜 기자]

- URL: unionpress.upnews.kr/120074575612

오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주한 외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자들을 초청,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다.

각국의 문화 담당자들과 우리나라의 문화관계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로 이를 통해 앞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멕시코, 캄보디아, 싱가포르 등 총 15개국의 주한 외국 문화 주재관이 참석하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문화산업 관련 업계, 문화교류관련 전문가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총 40 여명이 참석하여 국가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직접 각국 문화주재관에 대해 한국과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당부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워크숍의 부대행사로 과거 서남 실크로드의 중심축으로서 중국, 티벳, 네팔 등지에서 의 문명간 교류역할을 한 차마고도(茶馬古道)의 삶과 관련된 전시물 관람과 뮤지컬 관람 등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번 21세기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요성과 의미, 그리고 세계 각국과 다양한 콘텐츠 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아울러 워크숍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 문화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과 우리문화가 세계 각국에 친근하게 다가 갈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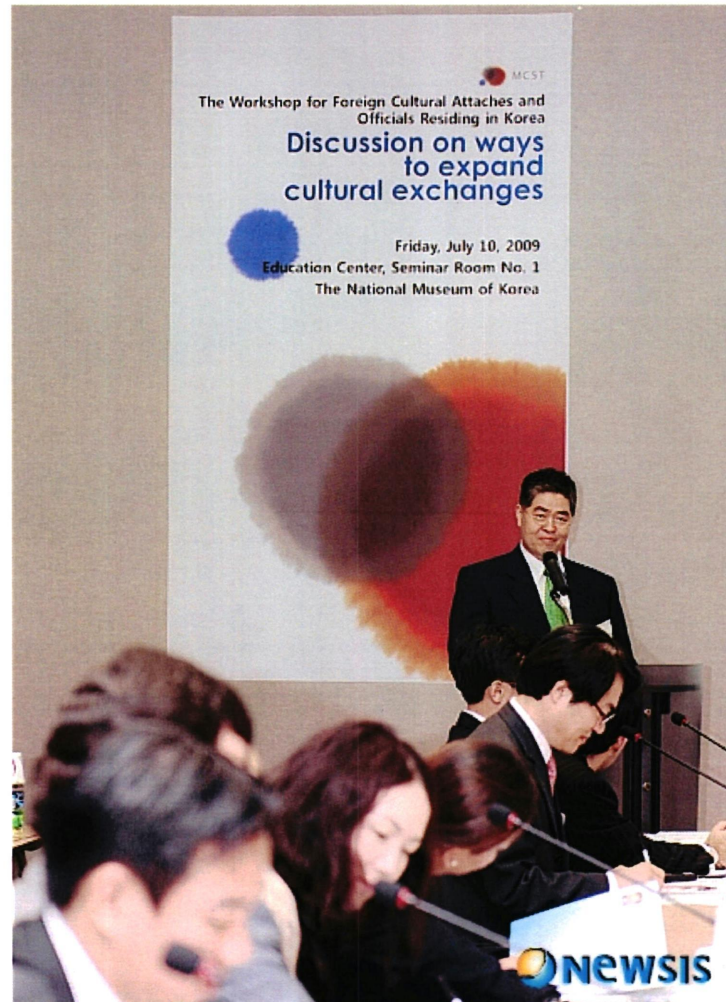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Zhao He, Che 중국문화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회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3



【서울=뉴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김영훈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주제발표 듣는 참석자들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3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참석자들이 Zhao He, Che 중국문화원장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한 문화주재관 워크숍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주제발표하는 중국문화원장

O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Zhao He, Che 중국문화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주제발표 듣는 참석자들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환영사 대독하는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병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유인촌 장관의 환영사를 대독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Zhao He, Che 문화참사관의 주제발표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Zhao He, Che 중국문화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축사하는 함영준 비서관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광비서관 축사를 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토론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4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Zhao He, Che 중국문화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

NEWSIS | 기사입력 2009-07-10 16:35



【서울=뉴스시스】

10일 오후 '쌍방향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한 해외 문화주재관 워크숍이 열린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참석자들이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광비서관의 축사를 듣고 있다.

전진환기자 amin2@newsis.com